

觀念論點의 指摘[下]

張善明

다음으로朴君은 詩歌에 對한 大衆化問題를 論하였다. 그리고 過去의 詩歌가 大衆的이 되지 못한 基因을 말함에 作者의 意識과 技能不足, 詩歌를 理解할만한 大衆의 智的 敎養問題, 發表機關과 檢閱問題 이 모든 것을 力說하였다. 그러나 全文을 通하여볼진대 發表機關과 檢閱問題를 第一 重要하게 取扱한 感이 업지 안타. 그러나 朴君은 이에 對한 何等의 特異한 具體的 答案이 업시 『工場으로』 『農村으로』를 부르짖기에 맞브었다. 同時에 外界의 障礙를 避할 巧妙한 技術을 練磨하자고 하였다. 檢閱이란 關門을 通함에는 巧妙한 技術이 必要타고 主張한 朴君은 또 어떤 致命的 誤謬를 犯하였는가 君은 말한다.

『資本을 募集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工場新聞, 農村新聞 等を 刊行하여야 한다. 이리케 하여 農村으로 工場으로 우리의 宣傳煽動的 藝術作品을 持去하여야한다. 그러나 이에 우리는 可憎한 制限을 맞고 잇스니, 이것을 巧妨히 避하려는것은 한 妄想에 不過하다. 檢閱이란 關門을 나오는 以上大衆을 『아지』할 效能의 可否를 疑心치 안 할수 업다』(朴)

이무슨 要領 不得의 論說이냐? 君이 主張한바에 依하면 푸로레타리아의 生活感情과 戰鬪的 意慾을 놀애한 作品(但君은 詩歌를 말했다)을 가지고 工場 農村으로 들어가서 宣傳煽動하지 안흐면 안될 것을 力說하였고, 또 反面에 巧妙한 技術이 必要타고 하였다. 그러고는 또 繼續하여 『檢閱이란 可憎한 制限을 巧妙히 避하라는것은 妄想이다. 檢閱門을 通하는 以上 大衆을 『아지』할 效能의 可否를 疑心치 안 할수 업다』고 하였다. 이무슨 妄論이냐 君이 말한 工場農村의 大衆속으로 持去하여 『아지·프로』하여야겠다는 作品은 어찌한 作品이냐? 技術 練磨한 作品이냐? 그러치 안흐면 檢閱門을 通치안코 海外로부터 가져온 非 出版法에 依한 作品이냐? 또 그리고 檢閱門을 通하여 制作된 作品만이! 制作되고 잇는 現實의 作品은 勞動民衆을 『아지』할 수 업는 無用의 長物이란 말이냐! 君아! 君은 어찌하여 現實을 無視하는가? 우리 푸로

藝術運動의 當面任務는 前衛만을 對象함이 아니요. 無意識大衆인 勞動者農民을 意識的 敎養을 시키며 集團意識이 薄弱한 그들로 하여금 組織的으로 集團意識乃至 政治的 覺醒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急務일 것이다.

그리고 君의 말한 外界의 支障인 檢閱이란 難關을 戰取함도 全푸로레타리아의 總動員이 아니면 到底히 不可能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技術 練磨한 技能으로 大衆을 組織訓練시키며 一方鬪爭으로서 그것을 克服하여야 할 것이다.

君의 말과 가티 檢閱이란 것이 障礙한다고 붓을 썩거 버려서는 안 된다. 檢閱이란 이 門을 通하여야서라도 大衆을 『아지프로』함에 不能한 部分이만다. 이에 適切한 例는 『朝鮮講壇』 新年號에 發表된 宋影氏 作『一切面會를 拒絕』 즉 이것이다. 얼마나 力作이나? 資本主義社會의 모든 醜態를 餘地업시 暴露시키지 안하는가? 個人利潤에 置重하여 團體를 利用하고 黃金으로서 自己의 醜態를 隱蔽하려는 紡績會社長—이것이 비록 一個의 作品이로되 醜陋한 現實社會의 모든 것을 遺憾업시 暴露시켰스며, 無意識 未組織 大衆으로 하여금 얼마나 격도케 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作品表面에 발러 놓는 生硬한 理論은 되도록 버리고 大衆環境과 逢着한 事件과 그들의 거즈른 感情과 社會諸現實을 寫實的으로 描寫하여 『아지·프로』하는 同時에 大衆으로 하여금 動員케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로 보아서『一切面會拒絕』가 튼 것이 꼭 必要하다고 본다.

스트로 朴君께 再三말하거니와 우리의 鬪爭은 觀念對 觀念鬪爭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客觀의 情勢인 檢閱이란 憎惡物로 因하여 過히 驚歎치말고 空想的 浪漫的 構想이 아닌 힘 잇는 作品을 만히 力作키바라고 이에 붓을 놓는다.==꽃== 一・一九日草